

# 아합, 하나님께 덤빈 왕

\* 10/12(화) 열왕기상 ⑦ 19-22장

통일왕국	분열왕국	
남유다 / 북이스라엘 12-22장		
두 왕, 두 왕국 12:1-24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2:25-14:20 유다 왕 르호보암 14:21-31  <b>참고도서</b>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성서유니온 열왕기 통성경 길라잡이	유다 왕 아비얌 15:1-8 유다 왕 아사 15:9-24 이스라엘 왕 나답 15:25-31 이스라엘 왕 바아사 15:32-16:7 이스라엘 왕 엘라 16:8-14 이스라엘 왕 시므리 16:15-20 이스라엘 왕 오므리 16:21-28	▶ <b>이스라엘 왕 아합 16:29-22:40</b> · 악한 왕 / 22년 통치 · 여로보암의 죄 + 바알, 아세라 숭배 · 아합의 아내 이세벨 · 엘리야의 등장 / 가뭄 / 까마귀 · 사르밧 여인 이야기 · 엘리야 vs. 바알의 선지자 450명 · 사십 주 사십 야, 동행(19:8) · 엘리야와 여호와 · 바알을 섬기지 않은 7,000명 (19:18) · 엘리야의 등장 · 아합과 아람의 전쟁 · 나봇의 포도원 · 왕의 갑옷 솔기, 아합의 끝 ▶ <b>유다 왕 여호사밧 22:41-50</b> · 다윗의 길(산당 예외) / 25년 통치 · 아버지 아사와 같음 ▶ <b>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22:51-53</b> · 여로보암의 길 / 2년 통치

## Before 즐치며 읽기

유한한 인생을 주관하시는  
 무한하신 하나님을  
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.

## After 묵상하기

<하나님의 하나님 되심>을  
 날마다  
 인정하고 계십니까?

\* '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.'  
 \*\*가나안 종교에서 **바알**은  
 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.

삼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가뭄으로  
 아합과 \*엘리야는 만나게 됩니다(18:1).

갈멜 산에서 대결합니다.  
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입니다.  
 '여호와(I am the LORD)' 하나님,  
 '스스로 있는 자(I AM WHO I AM)'께서  
 그들의 \*\*비의 신과 겨루십니다(18:36-39, 20:28, 출 3:14).

하나님께 덤비는 자들에게와  
 '죄'를 떠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 
 하나님의 '눈높이 교육'입니다.

주님을 산에 가둘 수 없습니다(20:23, 28).  
 여호와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에 한계는 없습니다.

### • 인간의 한계① : 로뎀 나무 아래

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겨뤘 이기고, 빗속을 달린 엘리야(18:45-46).  
그가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, 주저앉아 버렸습니다.  
까마귀를 보내 먹이셨던 하나님, 갈멜 산의 여호와 보다, 이세벨이 보였습니다.

사십 주 사십 야,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지시고, 그를 먹이십니다(19:5-8).

‘나만 남았다’고 생각했습니다(19:10).  
아닙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(19:18).  
‘겉옷을 그의 위에 던져’ 뒤를 잇게 할, 후계자도 있었습니다(19:19).

고통 속에 방황하는 마음, 주님께로 갈 수 없게 하지만  
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,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.  
하나님의 사람에겐 길이,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사역에는 끝도, 멈춤도 없습니다.

### • 인간의 한계② : 왕의 갑옷 슬기

왕이 병사로 ‘변장’을 하고, 전쟁터에 나갑니다(22:30).

예전에 여로보암은 아내를 ‘변장’시켜 보냈습니다.  
시각에 장애가 있던 아히야의 인간적 상황에 무지했습니다.  
하나님의 선지자에게 ‘위장’을 시도했습니다.  
그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(14:2-5).

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. 분칠한 얼굴 뒤의 민낯을 낱낱이 아십니다.

아람의 병사 하나가 ‘무심코’ 쓴 화살이  
‘우연히’ 갑옷 슬기의 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,  
아합을 맞습니다. ‘하나님의 말씀 그대로’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(22:34, 37-38).

“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(21:15).”

왕 되신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(레 25:23).  
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는 포도원을, 채소밭으로 바꾸려 했습니다(신 11:10, 사 3:14-15).

하나님께 덤빈, ‘죄’의 결과는 사망입니다(21:18-19, 롬 6:23).  
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, 인간의 ‘피’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

주님을 인정함이 ‘축복’이요, ‘행복’입니다. 주님이 ‘극복’시키시고, ‘회복’하십니다.  
누가 진정한 <신>입니까? 누가 진정한 나의 <왕>입니까?